

白斑症 使用藥物에 대한 文獻的 考察

- 關聯文獻에 나타난 白斑症의 常用藥物 種類, 虛實, 時代,
原因別 分類를 中心으로 -

李 仙 童*

ABSTRACT

A Documentary Study on Herb, Dmgs used for Vitiligo
-With an emphasis on classifying kinds, excess and weakness
syndrome, the changes of medical methods and factors by each epoch
mentioned in the relative documentary records.

Sangji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Lee Sun-dong

Arranging 63 kinds of separate volumes and papers published on Oriental medicine, I could get the result as follows.

1. The herbs for internal application used commonly in vitiligo are 155 kinds totally.
The herbs for external application are 67 kinds. The herbs for external and internal both application examined into 23 sorts.
2. Herbs for weakness syndrome in vitiligo are 49 kinds. Another type, excess syndrome is 105 sorts, the latter is roughly twice as many as the former.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 본 논문은 1995년 9월 22일 대한한의학회에 제출된 논문임.

3. It is as follows that the results of study in relations to kinds, factors, and medical treatments of herbs about vitiligo in and out of the country with the division of former times to 1900, 1901 to 1980, 1981 to 1990, and 1991 to the latest day. In comparative study of inner and outer of the country about factors and medical treatments of vitiligo in chronicle classification, its factors in the internal documents are classified by outside factors. Although there are the differences of factors by each epoch, however, the factors of vitiligo according to external documents are blood stasis(血熱), deficiency of um of the liver and kidneys(肝腎陰虛), deficiency of blood(血虛), excess of exhaustion(勞倦過多) etc. Moreover, the medical treatment is more diverse and the differences by each epoch as to the medical treatment is also put down more saliantly than in internal documents.
4. In comparison with herbs in experimental and no experimental documents, herbs applied for weakness syndromes in experimental method are 40 kinds totally. The herbs in no experimental methods are 35 kinds. The herbs used by experimental method are 65 kinds. The common herbs for excess syndrome by no experimental method are 78 kinds. We can see comparable difference from kinds of herbs used by experimental method.

In brief, there are the differences classified by each epoch in Oriental medicine for treatment. Espec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 the frequency in use of weakness syndrome herbs ha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excess syndrome herbs. In external documents(china) and experimental study, generally the differences of common herbs and factors have disappeared through many experiments study. The classification of its factors have been fractionalized clinically. Besides, i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vitiligo tends to be prescribed not to simple skin disease but a mental and physical disease, a whole body and an internal disease.

I. 緒論

白斑症은 인구의 1~3% 유병율을 나타내는 피부에 발생하는 난치병 또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만성 피부질환 중의 하나이다. ^{1)~3)} 白斑症은 서양의학적인 용어이며, 한의학에서는 白殿

風, 白駁風, 斑駁, 汗斑, 癩瘍, 白癩 등으로, 일반인들은 백납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白斑症은 비전염성 후천성 질환으로 생명단축과 신체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않으나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특히 봄·여름 등 노출계절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어야하는 皮膚色素低下 또는 脫色の 질환이다.⁴⁾ 이러한 질병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적인 질병의 원인,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아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치료 및 豫防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 세포 자가 파괴설 등으로 白斑症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¹⁾ 있으며 최근 이중에서 특히 면역기능저하·실조, 자가면역질환 등 주로 면역계통으로 연구되고있다.^{1),5),6)} 그러나 서양의학적인 치료방법은 자외선(UVA), 피부이식, Steroid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만^{1),7)} 재발율과 치료방법의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8)~10)}

국내 한의학에서는 아직 새로운 白斑症 치료의 시도나 학문적 접근 등이 미비한 실정이며,^{11)~13)} 최근 중국에서 많은 학문적 발달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과학적인 접근방법과 한의학적인 약물과 원리를 종합하여 새로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白斑症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크게 外因과 內因, 實症과 虛症, 原發性과 續發性, 停止期와 擴散期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病因으로는 風, 寒, 濕, 熱, 肝腎陰虛, 七情鬱結, 瘀血, 遺傳, 氣血虛, 心腎不交, 心脾兩虛 등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病因들이 백반부위에 氣血循環의 障礙 및 失和를 유발하거나, 여기에 다시 風邪가 침입하여 皮膚 또는 肌肉과 關聯經絡에 滋養作用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20)~30)} 또한 최근 대기오염으로 자외선 투과량의 증가, 화학공업의 발달로 탈색·발색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Phenyl기 계통의 화학물품 등의 사용량 증가로 직업인들의 白斑症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²⁹⁾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동·서양의학적인 白斑症의 시대별 학문 발달과정, 발생기전, 虛實, 原因, 時代, 實驗, 非實驗別 白斑症 사용약물의 종류등을 알아보하고자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앞으로 백반증 관련 연구에 중요한 기본적 자료가 될것으로 사료된다.

II. 研究 方法

본 연구는 이미 발표된 한의학중심의 단행본과 논문 등 62종을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관련문헌에 나타난 백반증의 內服, 外用, 內外兼用 약물의 종류

둘째, 백반증 허·실증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세째, 백반증 사용약물의 국내·외 문헌을 ~ 1900년, 1901~1980년, 1981~1990년, 1991년이 후 최근으로 나누어, 허증과 실증 사용약물, 외용약물, 원인및 치법, 실험과 비실험문헌중 백반증 상용약물의 종류

네째, 실험과 비실험문헌의 구별은 통계적 기법의 이용이나 일정한 조사기간, 환자의 선정의 일정한 기준및 실험실연구 가부에 근거하였다.

III. 本 論

1. 關聯文獻에 나타난 白斑症의 常用藥物 種類, 虛實, 時代, 原因別 分類

(1) 문헌에 나타난 白斑症 常用藥物 ^{13),15)~}
19),20),22),24),25),28),35)~47),49),50),52),53),54),55),56)

白斑症 상용약물중 내복약의 종류는 苦蔘, 甘菊, 枸杞子, 甘草, 骨碎補, 補骨脂, 何首烏, 女貞子, 烏梢蛇, 白蒺藜, 蒼耳子, 兔絲子, 黃精 등 155여종이었으며, 외용약물은 密陀僧, 白礬, 馬齒莧, 補骨脂, 石雄黃, 生薑, 信石, 水銀, 烏梅, 兔絲子 등 67종이었고, 內·外 兼用 藥物은 23종이었다.

1) 內服藥物

1.苦蔘, 2.甘菊, 3.枸杞子, 4.甘草, 5.羌活, 6.桔梗, 7.鷄血藤, 8.枸骨根, 9.桂枝, 10.甲珠, 11.龜板, 12.金櫻子, 13.骨碎補, 14.凌霄花, 15.豆淋酒, 16.獨活, 17.當歸, 18.桃仁, 19.大棗, 20.丹蔘, 21.黨蔘, 22.蔓荊子, 23.麻黃, 24.牡丹皮, 25.木香, 26.牡蠣, 27.麥門冬, 28.沒藥, 29.白附子, 30.浮萍, 31.防風, 32.白茯苓, 33.百花蛇舌草, 34.白芍藥, 35.白蒺藜, 36.補骨脂, 37.薄荷, 38.半夏, 39.白朮, 40.白芷, 41.白藥子, 42.白薇, 43.覆盆子, 44.白糖, 45.白蘚皮, 46.附子, 47.草薢, 48.白僵蠶, 49.石雄黃, 50.生薑, 51.石菖蒲, 52.麝香, 53.蟬退, 54.石斛, 55.細辛, 56.柴胡, 57.熟地黃, 58.升麻, 59.首烏藤, 60.生地黃, 61.沙苑子, 62.蘇木, 63.沙蔘, 64.桑椹子, 65.桑枝, 66.沙蒺藜, 67.仙靈脾, 68.山茱萸, 69.仙茅, 70.蘇梗, 71.石決明, 72.威靈仙, 73.益母草, 74.鬱金, 75.牛蒡子, 76.烏藥, 77.人蔘, 78.連翹, 79.草龍膽, 80.五靈脂, 81.遠志, 82.王不留行, 83.女貞子, 84.劉寄奴, 85.夜交藤, 86.蜈蚣, 87.元蔘, 88.烏梢蛇, 89.肉蓯蓉, 90.牛膝, 91.乳香, 92.皂角刺, 93.全蝎, 94.朱砂, 95.赤芍藥, 96.赤土, 97.豬脂, 98.朱茯苓, 99.磁石, 100.自然銅, 101.前胡, 102.赤茯苓, 103.枳殼,

104.陳皮, 105.紫草, 106.眞降香, 107.重樓, 108.枳實, 109.地骨皮, 110.地龍, 111.刺蒺藜, 112.釣鈎藤, 113.地膚子, 114.豬肝, 115.地榆, 116.蒼耳葉, 117.蒼朮, 118.川烏, 119.青蒿, 120.蒼耳草, 121.川芎, 122.天麻, 123.梔子, 124.蒼耳子, 125.蔥, 126.草河車, 127.芫薺子, 128.天花粉, 129.川練子, 130.川椒, 131.八月札, 132.蒲黃, 133.兔絲子, 134.土鱉蟲, 135.何首烏, 136.荊芥, 137.黑芝麻, 138.黃芩, 139.黃耆, 140.紅花, 141.海螵蛸, 142.香附子, 143.黑豆皮, 144.合歡皮, 145.夏枯草, 146.琥珀, 147.黃酒, 148.香茹, 149.花粉, 150.豨薺草, 151.黑豆, 152.胡桃, 153.黃精, 154.旱蓮草, 155.玄蔘

2) 外用藥物

1.苦蔘, 2.가지꼭지, 3.輕粉, 4.甘松, 5.苦練子, 6.骨碎補, 7.高粱酒, 8.南星, 9.綠豆, 10.當歸, 11.桃仁, 12.大黃, 13.密陀僧, 14.米醋, 15.毛姜, 16.馬齒莧, 17.白礬, 18.附子, 19.白僵蠶, 20.白附子, 21.뽕장어기름, 22.防風, 23.白蒺藜, 24.補骨脂, 25.薄荷, 26.白芷, 27.白芨, 28.冰片, 29.百部根, 30.白酒, 31.斑貓, 32.石雄黃, 33.生薑, 34.麝香, 35.蟬退, 36.蛇床子, 37.石黃, 38.수박껍질, 39.信石, 40.山奈, 41.水銀, 42.三季紅, 43.硫黃, 44.月石, 45.連翹, 46.肉桂, 47.烏梅, 48.皂角刺, 49.全蝎, 50.朱砂, 51.雌黃, 52.朝腦, 53.楮實子, 54.地骨皮, 55.地丁草, 56.川烏, 57.草烏, 58.梔子, 59.川槿皮, 60.穿山甲, 61.兔絲子, 62.土茯苓, 63.荊芥, 64.黃丹, 65.紅砒, 66.杏仁, 67.紅糖

3) 內·外 兼用 藥物

1.苦蔘, 2.骨碎補, 3.當歸, 4.桃仁, 5.白附子, 6.白

僵蠶, 7.防風, 8.白蒺藜, 9.補骨脂, 10.薄荷, 11.白芷, 12.石雄黃, 13.生薑, 14.麝香, 15.蟬退, 16.連翹, 17.皂角刺, 18.全蝎, 19.朱砂, 20.地骨皮, 21.川烏, 22.梔子, 23.荊芥

근의 문헌에서는 金櫻子, 骨碎補, 當歸, 補骨脂, 生地黃, 沙苑子, 桑椹子, 元蓼, 黑豆, 旱蓮草 등 42종류였다.

(2) 白斑症 常用藥物的 虛實 분류 ^{20),22),24),25), 28),46),49)~52),56)}

虛症 즉 人體의 正氣을 補해주는 藥물은 枸杞子, 甘草, 大棗, 當歸, 補骨脂, 熟地黃, 沙苑子, 女貞子, 黑芝麻, 黃精 등 49종 이었으며, 實症에 사용하는 藥물은 苦蔘, 甘菊, 白蒺藜, 白芷, 百花蛇舌草, 烏梢蛇, 朱砂, 皂角刺, 自然銅, 蒼耳子, 夏枯草 등 105종으로 使用藥물의 種類에서는 虛症 使用藥물에 비해 實症 使用藥물의 種類가 2배정도 많았다

1) 虛症 使用藥물 ^{20),22),24),25),28),29),36)~43),45),49)~53)}

또한 實症 使用藥물을 國內 文헌을 근거하여 시대별로 살펴보면 1900년까지는 苦蔘, 甘菊, 蔓荊子, 荊芥 등 8종류의 藥물이 사용되었으며, 1901~1980년 사이에는 苦蔘, 甘菊, 羌活, 細辛, 朱砂, 赤芍藥, 天麻 등 26종류, 1991년 이후 현재까지는 苦蔘, 羌活, 麻黃, 防風, 浮萍, 薄荷, 天麻 등 22종류가 사용되었다.

(3) 白斑症 常用藥物的 國內·國外文헌의 시대별 분류

시대별 분류는 ~1900년, 1901~1980년, 1981~1990년, 1991년 이후 최근까지 藥물사용과 문헌 발표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國外文헌을 살펴보면 1900년까지는 苦蔘, 桃仁, 麝香, 升麻, 皂角刺, 赤茯苓, 陳皮, 蒼耳子, 黃芩, 紅花 등 35종류였으며, 1981~1990년 사이에는 桔梗, 鷄血藤, 益母草, 鬱金, 朱茯苓, 眞降香, 蒼耳子, 八月札, 香附子, 夏枯草 등 48종이었고, 1991년 이후 현재까지는 木香, 沒藥, 白蒺藜, 百花蛇舌草, 釣鉤藤, 蒼耳子, 川芎, 青蒿, 紅花, 玄蔘 등 69종류였다. 따라서 白斑症의 虛·實症에 사용된 藥물의 種類 뿐만아니라 外用藥물 등도 國內文헌의 使用藥물에 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中國에서 출판된 文헌과 資料가 훨씬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國內 文헌중 虛症藥物的 시대별 사용을 보면, 1900년까지의 藥물은 枸杞子, 石菖蒲, 何首烏 였으며, 1901~1980년 사이의 藥물은 枸杞子, 石菖蒲, 何首烏 이외에 甘草, 當歸, 黑芝麻 등을 文헌에서 볼 수 있으며 1991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존의 使用藥물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반면에 國외 특히 中國의 文헌을 보면 1900년까지의 使用藥물은 甘草, 當歸, 白芍藥, 熟地黃, 黑芝麻 등 15종류였으며, 1981~1990년사이에는 當歸, 大棗, 丹蔘, 黨蔘, 補骨脂, 覆盆子, 熟地黃, 女貞子, 黑芝麻 등 23종이었고, 1991년 이후 최

표 1 白斑症 상용약물의 虛實

虛(補)症 사용 약물	實(瀉)症 사용 약물
1.枸杞子, 2.甘草, 3.龜板, 4.金櫻子, 5.骨碎補, 6.當歸, 7.大棗, 8.丹蔘, 9.黨蔘, 10.牡丹皮, 11.牡蠣, 12.麥門冬, 13.白茯苓, 14.白芍藥, 15.補骨脂, 16.白朮, 17.覆盆子, 18.白糖, 19.附子, 20.生薑, 21.石菖蒲, 22.石斛, 23.熟地黃, 24.生地黃, 25.沙苑子, 26.沙蔘, 27.桑椹子, 28.仙靈脾, 29.山茱萸, 30.仙茅, 31.人蔘, 32.遠志, 33.女貞子, 34.元蔘, 35.肉蓯蓉, 36.磁石, 37.川芎, 38.何首烏, 39.黑芝麻, 40.黃耆, 41.黑豆皮, 42.合歡皮, 43.琥珀, 44.花粉, 45.黑豆, 46.胡桃, 47.黃精, 48.旱蓮草, 49.兔絲子	1.苦蔘, 2.甘菊, 3.羌活, 4.桔梗, 5.鷄血藤, 6.枸骨根, 7.桂枝, 8.甲珠, 9.凌霄花, 10.豆淋酒, 11.獨活, 12.桃仁, 13.蔓荊子, 14.麻黃, 15.木香, 16.沒藥, 17.白附子, 18.浮萍, 19.防風, 20.白蒺藜, 21.薄荷, 22.半夏, 23.白芷, 24.白藥子, 25.白薇, 26.白蘚皮, 27.萆薢, 28.百花蛇舌草, 29.白僵蠶, 30.石雄黃, 31.麝香, 32.蟬退, 33.細辛, 34.柴胡, 35.升麻, 36.首烏藤, 37.蘇木, 38.桑枝, 39.沙蒺藜, 40.蘇梗, 41.石決明, 42.威靈仙, 43.益母草, 44.鬱金, 45.牛蒡子, 46.烏藥, 47.連翹, 48.龍膽草, 49.五靈脂, 50.王不留行, 51.劉寄奴, 52.夜交藤, 53.蜈蚣, 54.烏梢蛇, 55.牛膝, 56.乳香, 57.皂角刺, 58.全蝎, 59.朱砂, 60.赤芍藥, 61.赤土, 62.豬脂, 63.朱茯苓, 64.自然銅, 65.前胡, 66.赤茯苓, 67.枳殼, 68.陳皮, 69.紫草, 70.眞降香, 71.重樓, 72.枳實, 73.地骨皮, 74.地龍, 75.刺蒺藜, 76.釣鈎藤, 77.地膚子, 78.地榆, 79.蒼耳葉, 80.蒼朮, 81.川烏, 82.蒼耳草, 83.天麻, 84.梔子, 85.蒼耳子, 86.蔥, 87.草河車, 88.蒼蔚子, 89.天花粉, 90.川練子, 91.川椒, 92.青蒿, 93.八月札, 94.蒲黃, 95.土鱉蟲, 96.荊芥, 97.黃芩, 98.紅花, 99.海螵蛸, 100.香附子, 101.夏枯草, 102.黃酒, 103.香茹, 104.稀薺, 105.玄蔘

표 2 時代別 國內·外 文獻의 虛症 使用藥物

시대별	국내	국외
1900년 이전	1.枸杞子, 2.石菖蒲, 3.何首烏	1.甘草, 2.當歸, 3.大棗, 4.牡丹皮, 5.白芍藥, 6.白朮, 7.生薑, 8.石菖蒲, 9.石斛, 10.熟地黃, 11.人蔘, 12.川芎, 13.何首烏, 14.黑芝麻, 15.黃耆
1901~1980	1.枸杞子, 2.甘草, 3.當歸, 4.白茯苓, 5.石菖蒲, 6.石斛, 7.川芎, 8.何首烏, 9.黑芝麻	
1981~1990		1.枸杞子, 2.甘草, 3.當歸, 4.大棗, 5.丹蔘, 6.黨蔘, 7.牡丹皮, 8.白芍藥, 9.補骨脂, 10.覆盆子, 11.生薑, 12.熟地黃, 13.生地黃, 14.沙苑子, 15.遠志, 16.女貞子, 17.磁石, 18.何首烏, 19.黑芝麻, 20.黃耆, 21.黑豆皮, 22.合歡皮, 23.琥珀
1991년 이후	1.甘草, 2.當歸, 3.白茯苓, 4.石菖蒲, 5.石斛, 6.人蔘, 7.川芎, 8.何首烏, 9.黑芝麻, 10.生薑	1.枸杞子, 2.甘草, 3.金櫻子, 4.骨碎補, 5.當歸, 6.大棗, 7.丹蔘, 8.黨蔘, 9.牡丹皮, 10.牡蠣, 11.麥門冬, 12.白茯苓, 13.白芍藥, 14.補骨脂, 15.白朮, 16.覆盆子, 17.白糖, 18.附子, 19.生薑, 20.石菖蒲, 21.熟地黃, 22.生地黃, 23.沙苑子, 24.沙蔘, 25.桑椹子, 26.仙靈脾, 27.山茱萸, 28.仙茅, 29.女貞子, 30.元蔘, 31.肉蓯蓉, 32.磁石, 33.豬肝, 34.何首烏, 35.黑芝麻, 36.黃耆, 37.琥珀, 38.花粉, 39.黑豆, 40.胡桃, 41.黃精, 42.旱蓮草

2) 實症 사용 약물 15)~19),20),22),24),25),28),29),36)~43),45),49)~53),54)~56)

표 3. 時代別 國內·外 文獻의 實症藥物

시 대 별	국 내	국 외
1900년 이전	1.苦蔘, 2.甘菊, 3.蔓荊子, 4.威靈仙, 5.皂角刺, 6.蒼耳葉, 7.蒼朮, 8.荊芥	1.苦蔘, 2.羌活, 3.桔梗, 4.凌霄花, 5.豆淋酒, 6.獨活, 7.桃仁, 8.麻黃, 9.石雄黃, 10.麝香, 11.蟬退, 12.細辛, 13.柴胡, 14.升麻, 15.威靈仙, 16.烏藥, 17.連翹, 18.皂角刺, 19.全蝎, 20.朱砂, 21.赤芍藥, 22.前胡, 23.赤茯苓, 24.枳殼, 25.陳皮, 26.蒼朮, 27.川烏, 28.蒼耳草, 29.天麻, 30.梔子, 31.蒼耳子, 32.蔥, 33.荊芥, 34.黃芩, 35.紅花
1901~1980	1.苦蔘, 2.甘菊, 3.羌活, 4.豆淋酒, 5.獨活, 6.蔓荊子, 7.麻黃, 8.白附子, 9.浮萍, 10.防風, 11.石雄黃, 12.細辛, 13.威靈仙, 14.烏藥, 15.皂角刺, 16.全蝎, 17.朱砂, 18.赤芍藥, 19.赤土, 20.豬脂, 21.蒼耳葉, 22.蒼朮, 23.川烏, 24.蒼耳草, 25.天麻, 26.荊芥	
1981~1990		1.桔梗, 2.鷄血藤, 3.桃仁, 4.浮萍, 5.防風, 6.白蒺藜, 7.白芷, 8.白藥子, 9.白薇, 10.麝香, 11.蟬退, 12.柴胡, 13.首烏藤, 14.威靈仙, 15.益母草, 16.鬱金, 17.龍膽草, 18.五靈脂, 19.王不留行, 20.劉寄奴, 21.赤芍藥, 22.朱茯苓, 23.自然銅, 24.枳殼, 25.陳皮, 26.紫草, 27.眞降香, 28.重樓, 29.枳實, 30.地骨皮, 31.地龍, 32.刺蒺藜, 33.蒼朮, 34.蒼耳草, 35.川芎, 36.梔子, 37.蒼耳子, 38.蔥, 39.草河車, 40.八月札, 41.蒲黃, 42.土鱉蟲, 43.荊芥, 44.紅花, 45.海蝶肖, 46.香附子, 47.夏枯草, 48.黃酒
1991년 이후	1.苦蔘, 2.羌活, 3.桔梗, 4.獨活, 5.麻黃, 6.白附子, 7.浮萍, 8.防風, 9.薄荷, 10.石雄黃, 11.蟬退, 12.細辛, 13.威靈仙, 14.烏藥, 15.全蝎, 16.前胡, 17.赤茯苓, 18.枳殼, 19.蒼朮, 20.川烏, 21.天麻, 22.荊芥	1.苦蔘, 2.桔梗, 3.鷄血藤, 4.桂枝, 5.桃仁, 6.蔓荊子, 7.木香, 8.沒藥, 9.白附子, 10.浮萍, 11.防風, 12.白蒺藜, 13.白芷, 14.白薇, 15.白蘚皮, 16.葶藶, 17.百花蛇舌草, 18.白殭蠶, 19.麝香, 20.蟬退, 21.柴胡, 22.蘇木, 23.桑枝, 24.沙蒺藜, 25.蘇梗, 26.石決明, 27.威靈仙, 28.益母草, 29.鬱金, 30.牛蒡子, 31.連翹, 32.龍膽草, 33.劉寄奴, 34.夜交藤, 35.蜈蚣, 36.烏梢蛇, 37.牛膝, 38.乳香, 39.赤芍藥, 40.朱茯苓, 41.自然銅, 42.陳皮, 44.紫草, 45.重樓, 46.地龍, 47.刺蒺藜, 48.釣鈎藤, 49.地膚子, 50.地榆, 51.蒼朮, 52.蒼耳草, 53.川芎, 54.蒼耳子, 55.蔥, 56.草河車, 57.羌藟子, 58.天花粉, 59.川練子, 60.川椒, 61.青蒿, 62.八月札, 63.土鱉蟲, 64.荊芥, 65.紅花, 66.海蝶肖, 67.香附子, 68.豨僉草, 69.玄蔘

3) 外用藥物 ^{13),15)~19),22),24),25),29),35),37),38),42)~45),47),49)~53),54),55)}

표 4 時代別 國內·外 文獻의 外用藥物

시 대 별	국 내	국 외
1900년 이전	1.가지꼭지, 2.南星, 3.密陀僧, 4.白礬, 5.附子, 6.白僵蠶, 7.白附子, 8.石雄黃, 9.生薑, 10.麝香, 11.硫黃, 12.全蝎, 13.黃丹	1.가지꼭지, 2.輕粉, 3.甘松, 4.綠豆, 5.密陀僧, 6.白附子, 7.白芷, 8.石雄黃, 9.生薑, 10.蛇床子, 11.石黃, 12.信石, 13.山奈, 14.硫黃, 15.皂角刺, 16.雌黃, 17.朝腦, 18.楮實子, 19.川槿皮
1901~1980	1.輕粉, 2.南星, 3.密陀僧, 4.白礬, 5.附子, 6.뱀장어기름, 7.石雄黃, 8.生薑, 9.麝香, 10.蟬退, 11.蛇床子, 12.石黃, 13.硫黃, 14.朱砂, 15.川烏, 16.草烏, 17.黃丹, 18.紅砒	
1981~1990	1.輕粉, 2.密陀僧, 3.補骨脂, 4.石雄黃, 5.蛇床子, 6.石黃, 7.硫黃	1.輕粉, 2.苦練子, 3.當歸, 4.密陀僧, 5.米醋, 6.馬齒莧, 7.白礬, 8.白附子, 9.防風, 10.補骨脂, 11.薄荷, 12.白芷, 13.白芨, 14.冰片, 15.百部根, 16.白酒, 17.石雄黃, 18.麝香, 19.蛇床子, 20.石黃, 21.硫黃, 22.連翹, 23.朱砂, 24.雌黃, 25.地骨皮, 26.地丁草, 27.川槿皮, 28.兔絲子, 29.土茯苓, 30.荊芥, 31.杏仁, 32.紅糖
1991년 이후	1.輕粉, 2.密陀僧, 3.石雄黃, 4.蛇床子, 5.石黃, 6.수박껍질, 7.硫黃, 8.月石	1.苦參, 2.輕粉, 3.骨碎補, 4.高粱酒, 5.大黃, 6.密陀僧, 7.米醋, 8.毛姜, 9.馬齒莧, 10.白礬, 11.白附子, 12.白蒺藜, 13.補骨脂, 14.白芷, 15.白芨, 16.冰片, 17.斑貓, 18.石雄黃, 19.生薑, 20.麝香, 21.蛇床子, 22.水銀, 23.三季紅, 24.硫黃, 25.肉桂, 26.烏梅, 27.朱砂, 28.雌黃, 29.梔子, 30.穿山甲, 31.兔絲子, 32.紅糖

(4) 白斑症치료의 時代別 國內·外別 原因, 治法, 實驗·非實驗 研究比較

1) 白斑症 原因 및 治法의 時代別 國內·國외 比較 (13), (15)~(20), (22), (24), (25), (28), (35), (36), (38)~(47), (53), (54), (56)~(60)

白斑症 原因의 時代別 比較연구에서 國內 文헌에서는 주로 風邪, 濕邪, 風熱, 肝氣鬱結 등으로 분류했으며, 國외 文헌에서는 風邪, 濕邪, 肝氣鬱結 외에 汗出時 皮膚刺戟, 血瘀, 肝腎陰虛, 血虛, 勞倦過度 등 白斑症의 原因을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또한 白斑症 治法의 時代別 分類을 살펴보면, 國內 文헌에서는 疎肝解鬱, 活血去風, 發汗 등이었으며, 國외 文헌에서는 汗散, 滋養氣血, 活血祛風, 疎肝理氣, 滋養肝腎, 除濕清熱, 殺蟲, 散痰, 扶正固本, 養血活絡, 交通心腎 등으로 治法이 다양하였다.

표 5 時代別 國內·外 文獻의 原因

시대별	국내	국외
1900년 이전	1. 風邪	1. 風邪, 2. 肺熱, 肺風, 3. 風濕, 4. 汗出時 피부 자극, 5. 血瘀
1901~1980	1. 風邪, 2. 濕氣, 3. 營養, 自律神經障礙	
1981~1990	1. 風邪, 2. 風熱, 肺熱, 3. 肝氣鬱結	1. 風邪, 2. 七情內傷, 肝氣鬱結, 3. 風濕, 4. 瘀血, 5. 汗衣經晒著體, 6. 腎陰虛
1991년 이후	1. 風濕	1. 風邪, 2. 情志內傷, 肝氣鬱結, 3. 肝腎陰血不足, 4. 風濕, 5. 過度勞倦, 6. 驚恐, 7. 腎氣不足, 腎精虧乏, 8. 血虛風乘, 氣血失和

표 6 時代別 國內·外 文헌의 治법

시대별	국내	국외
1900년 이전		1. 初期 汗散, 2. 病久 滋養氣血
1901~1980		
1981~1990	1. 疎肝解鬱, 2. 活血去風	1. 活血去風, 2. 疎肝理氣, 3. 中和氣血, 4. 滋腎滋肝, 5. 除濕清熱, 6. 殺蟲, 7. 散瘀開竅, 8. 寧心安神, 9. 活血通絡, 10. 扶正固本
1991년 이후	1. 發汗	1. 活血去風, 2. 除濕清熱, 3. 補益肝腎, 4. 調補陰陽, 5. 扶正固本, 6. 調和氣血, 7. 活血化痰, 8. 補益心脾, 9. 交通心腎, 10. 養血安神, 11. 舒肝理氣, 12. 養血活絡, 13. 調和脾胃

2) 實驗·非實驗 文헌중 白斑症 常用藥物的 比較 (15)~(20), (22), (24), (25), (28), (29), (36)~(43), (45), (49)~(51), (53), (54), ~ (56)

실험·비실험 文헌의 구별은 통계적 기법의 이용, 일정한 조사기간, 환자의 엄격 선정 그리고 실험실 연구 여부 등에 근거하였다. 實驗·非實驗 文헌중에서 白斑症에 사용되는 약물의 비교에서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된 자료에서 虛症에 사용된 藥物은 枸杞子, 甘草, 金櫻子, 黨蔘, 補骨脂, 沙苑子, 沙蔘, 桑椹子, 女貞子, 兔絲子, 黑芝麻, 黃耆, 胡桃, 旱蓮草 등 40종이었으며 實症에 사용되었던 약물은 65종으로 苦蔘, 菊, 桔梗, 鷄血藤, 桃仁, 沒藥, 百花蛇舌草, 烏梢蛇, 自然銅, 蒼耳子, 八月札, 紅花, 玄蔘 등이었다.

非實驗 方法으로 사용된 虛症 藥物은 枸杞子, 甘草, 龜板, 當歸, 大棗, 丹蔘, 黨蔘, 覆盆子, 生薑, 沙苑子, 桑椹子, 人蔘, 遠志, 女貞子, 磁石, 何首烏, 黑芝麻, 旱蓮草 등 35종 이었다.

또한 비실험 방법에서 이용한 문헌의 實症 藥物은 苦蔘, 甘菊, 桔梗, 鷄血藤, 蔓荊子, 白蒺藜, 益母草, 夜交藤, 皂角刺, 赤芍藥, 朱茯苓, 自然銅, 釣鉤藤, 蒼朮, 八月札, 紅花, 夏枯草 등 75종으로 65종의 실험 實症藥物보다 많았다.

표 7 실험·비실험 문헌의 虛實약물

약물 구분	실험	비 실험
虛(補)症약물	1.枸杞子, 2.甘草, 3.金櫻子, 4.骨碎補, 5.當歸, 6.大棗, 7.丹蔘, 8.黨蔘, 9.牡丹皮, 10.麥門冬, 11.白茯苓, 12.白芍藥, 13.補骨脂, 14.白朮, 15.覆盆子, 16.白糖, 17.生薑, 18.石菖蒲, 19.熟地黃, 20.生地黃, 21.沙苑子, 22.沙蔘, 23.桑椹子, 24.仙靈脾, 25.山茱萸, 26.仙茅, 27.女貞子, 28.肉蓯蓉, 29.磁石, 30.川芎, 31.兔絲子, 32.何首烏, 33.黑芝麻, 34.黃耆, 35.琥珀, 36.花粉, 37.黑豆, 38.胡桃, 39.旱蓮草, 40.黃精.	1.枸杞子, 2.甘草, 3.龜板, 4.當歸, 5.大棗, 6.丹蔘, 7.黨蔘, 8.牡丹皮, 9.牡蠣, 10.麥門冬, 11.白茯苓, 12.補骨脂, 13.白朮, 14.覆盆子, 15.附子, 16.生薑, 17.石菖蒲, 18.石斛, 19.熟地黃, 20.生地黃, 21.沙苑子, 22.桑椹子, 23.人蔘, 24.遠志, 25.女貞子, 26.元蔘, 27.磁石, 28.豬肝, 29.川芎, 30.何首烏, 31.黑芝麻, 32.黃耆, 33.黑豆皮, 34.合歡皮, 35.旱蓮草
實(瀉)症약물	1.苦蔘, 2.甘菊, 3.桔梗, 4.鷄血藤, 5.桂枝, 6.桃仁, 7.蔓荊子, 8.木香, 9.沒藥, 10.浮萍, 11.防風, 12.白蒺藜, 13.白芷, 14.白蘚皮, 15.葶藶, 16.百花蛇舌草, 17.白僵蠶, 18.麝香, 19.柴胡, 20.蟬退, 21.蘇木, 22.蘇梗, 23.石決明, 24.威靈仙, 25.益母草, 26.鬱金, 27.牛蒡子, 28.龍膽草, 29.劉寄奴, 30.夜交藤, 31.蜈蚣, 32.烏梢蛇, 33.牛膝, 34.乳香, 35.赤芍藥, 36.朱茯苓, 37.自然銅, 38.陳皮, 39.紫草, 40.眞降香, 41.地龍, 42.重樓, 43.刺蒺藜, 44.釣鉤藤, 45.地膚子, 46.地榆, 47.蒼朮, 48.蒼耳草, 49.蒼耳子, 50.蔥, 51.草河車, 52.羌蔚子, 53.川練子, 54.川椒, 55.青蒿, 56.八月札, 57.土鱉蟲, 58.荊芥, 59.黃芩, 60.海螵蛸, 61.黃芩, 62.紅花, 63.黃酒, 64.豨薟草, 65.玄蔘	1.苦蔘, 2.甘菊, 3.羌活, 4.桔梗, 5.鷄血藤, 6.甲珠, 7.桂枝, 8.凌霄花, 9.豆淋酒, 10.獨活, 11.桃仁, 12.麻黃, 13.蔓荊子, 14.白附子, 15.浮萍, 16.防風, 17.白蒺藜, 18.薄荷, 19.半夏, 20.白芷, 21.白藥子, 22.白薇, 23.白蘚皮, 24.石雄黃, 25.麝香, 26.蟬退, 27.細辛, 28.柴胡, 29.升麻, 30.首烏藤, 31.蘇木, 32.桑枝, 33.沙蒺藜, 34.石決明, 35.威靈仙, 36.益母草, 37.鬱金, 38.烏藥, 39.連翹, 40.龍膽草, 41.五靈脂, 42.王不留行, 43.劉寄奴, 44.夜交藤, 45.皂角刺, 46.全蝎, 47.朱砂, 48.赤芍藥, 49.朱茯苓, 50.赤土, 51.豬脂, 52.自然銅, 53.前胡, 54.赤茯苓, 55.枳殼, 56.陳皮, 57.紫草, 58.眞降香, 59.重樓, 60.枳實, 61.地骨皮, 62.刺蒺藜, 63.釣鉤藤, 64.地榆, 65.蒼耳葉, 66.蒼朮, 67.川烏, 68.蒼耳草, 69.草河車, 70.川練子, 71.八月札, 72.蒲黃, 73.荊芥, 74.黃芩, 75.紅花, 76.海螵蛸, 77.香附子, 78.夏枯草

IV. 考 察

1. 한의학적인 原因 및 病理

白癩風은 一名 白駁風, 汗斑, 斑駁, 白癜風 등 여러명칭으로 문헌²⁶⁾에 기재되어 있다. 백전풍의 원인은 백전풍의 性狀에 따라 外因과 內因, 實症과 虛症, 擴散期와 停止期, 原發性과 續發性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外因으로는 風, 濕, 寒 등이 하나 혹은 두가지 이상의 病因이 熱體의 皮膚나 肌腠에 침입하여 毛竅을 凝滯하여 氣血不行이나 氣血失和를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초기, 實症, 확산기에 해당되며 內因으로는 七情內傷, 過度勞倦, 驚恐, 肝腎陰虛, 心腎不交, 心脾兩虛, 血虛, 血熱, 肝熱, 肝血不足, 肝風, 肺風, 肺有壅熱, 肺臟久積風毒, 陰虛內熱, 脾腎陽虛 등으로 이들의 병리기전 과정은 氣血不和 氣機壅滯, 氣滯血瘀, 肝氣鬱結 氣血失和, 氣血生化無源하여 經脈과 皮膚를 유양하지 못하거나 衛外失職으로 여기에 다시 風邪가 쉽게 침입하여 經脈이 不暢되어 肌膚가 失養된다. 이는 주로 虛症, 停止期, 이환기간이 긴 특징이 있다. 또한 不內外因으로는 壓力, 摩擦, 手術 및 딱긴 腰帶 등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血瘀 經絡貯滯를 유발하거나 遺傳, 暑熱時 暴陽下에서 수건으로 몸에서 나는 땀을 문질러 닦거나 汗衣 大汗 行日中暑濕侵으로 발생된다.^{20)~30)} 그의 화학공업의 발달로 사진관 또는 작업장에서 phenyl기의 사용 등이 白斑症 발생의 원인²⁹⁾들이다. 직업적으로 직접적인 색소파괴원인 물질인 phenyl을 제외한 대부분의 原因과 病理를 종합

해보면 白斑症의 內·外因·不內外因들이 氣血失和, 氣血不和, 氣滯血瘀, 氣血凝滯를 일으켜 毛竅, 皮膚, 腠理, 肌肉에 短期, 長期間 滋養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血虛, 氣虛, 肝腎陰虛, 風寒濕相拍으로 白斑症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 西洋醫學的인 原因 및 病理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나 현재까지 설명되는 병인으로는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세포 자가파괴설, 유전등의 4가지가 가장 유력하다.

첫째로 면역설은 白斑症 환자에서 adrenal, cytoplasm, thyroid, cytoplasm, throglobuin, gastric paretal cell, pancreatic islet cell 등 기 관특이성 자가항체의 빈도가 높으며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저하, Addison's disease, Natural killer 세포의 활성치 증가 등 여러 자가면역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1),6),57)}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서 白斑症이 나타나는 빈도는 10~15%로 보고 있어 일반인구의 白斑症 발생빈도 1%보다 현저히 높다.⁵⁷⁾ 朱⁵⁾의 연구에 의하면 백전풍 환자의 55례중 자가면역질환 환자수는 8례(12.7%)에 비해서 대조군은 2예(3.6%)뿐으로 통계적인 유의성 (p<0.05)이 있어 자가면역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했으며 또한 朱의 T3, T4, T8, T4/T8 등 T임파세포아군의 분석⁶⁾ 중에서 환자 대조군간의 연구에서 T4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 謝 등⁵⁸⁾은 30례의 백전풍 환자의 血清中 抗멜라닌 세포 항체의 양성율이 67.7%라고 발표하였다. 최근 자가 면역 질환 가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위의 내용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연구들이 있다. 皮膚外傷은 白斑症 발생 중의 하나인데 이것의 기전은 아직 명확치 않으나 추론하면 表皮와 眞皮의 파괴로 自體抗原을 만들어 인체 면역 계통의 변화와 반응을 일으켜 병리 변화를 生産하는데, 이러한 반응을 “同形 反應”이라 하여 自家免疫反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朱⁵⁹⁾는 백전풍과 同形反應에 대한 연구에서 白斑症 환자 110例 中 16例 (14.5%)가 피부 자극, 外用藥사용 그리고 신경성 피부염 등 피부외상의 과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한의학 문헌의 白斑症 상용약물의 고찰과 동·서양 의학의 결합이 보다 활발한 중국에서 보고되는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1980년이후 虛症약물의 種類와 頻度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한의학에서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病因을 風, 寒, 濕 등 주로 外邪, 實症 등으로 여겨온 것을 생각한다면 白斑症 치료의 한의학적인 학문의 방향이 올바르게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중국의 양방병원에서도 白斑症 치료에 주로 한약물을 사용하는데, 사용약물은 거의 虛症藥物 즉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었다. 朱^{59),60)}, 方등²⁶⁾과 朱⁶¹⁾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서양의학적인 白斑症의 중요 치료 방법은 PUVA(자외선 치료), 피부이식, Steroid 투여등 피부과적 치료를 생각한다면 치료 방법의 차이가 白斑症을 일종의 전신 질환 혹은 내과적인 질환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많은 백반증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 의학적 결합 연구³⁰⁾를 보충 부연하면 한의학적으로 肝腎陰虛, 陰虛發熱, 氣血虛 등으로 辨證된 환자들의 면역학적 조사에서 세포 면역기능 즉 혈액의 NK세포, T림프 세포 및 그 亞群 들이 뚜렷이 낮았으며 특히 補益肝腎 하는 약물은 유기체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을 조절하여 시상하부 - 뇌하수체 - 부신 축의 평형을 조절하여 멜라닌을 정상적으로 합성케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면역기능 저하, 그리고 한의학 적 虛症의 개념의 발달 등은 백전풍 치료의 중요한 일련의 축이다.

1995년 5월 중국 靑島의 中西結合皮膚色素病 學會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¹⁴⁾에서는 한·양방 의학적결합연구가 학문적으로 더욱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白斑症의 과학적 연구, 한약물 투여후 면역 기능 개선 등 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抗평활근 항체, 抗심근 항체, 抗위별 세포 항체 등 인체의 자가 항체 측정치와 정상인과의 비교에서 明顯한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病程, 환부면적 정도와 正의 상관성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한의학의 邪之所漆 其氣必虛의 病理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신경체액설은 멜라닌세포가 신경능에서 기원하며 신경절에 따른 분포를 보이는 白斑症도 있고 신경손상이나 정신적 긴장후에 발병하는 예들은 신경체액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멜라닌 세포 근처에서 유리된 norepinephrine이나 catecholamine 등 신경화학 매개물질 tyrosine-tyrosinase 반응을 억제하며 멜라닌 세포 파괴를 일으킨다¹⁾. 楊⁵⁴⁾등은 2/3의 病例에

서 발병 혹은 피부손상이 정신 損傷, 思慮過多, 怔忡, 不眠過多 등의 정신적 긴장의 과도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했으며 또한 최근 한의학문헌^{35)~40),62)}중 七情鬱結에 관한 원인, 처방, 약물이 다양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경체액설과 白斑症 발생과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의 과도한 긴장시에 대량의 腎上腺素가 소모되는데 이때 腎上腺素의 합성을 유도하여 멜라닌 색소의 합성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 긴장 등은 마땅히 백전풍을 일으킬수있는 요소가 됨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세째로 멜라닌세포 자가파괴설은 멜라닌세포가 멜라닌 과립 형성과정에서 생긴 중간물질이나 대사물질에 대한 멜라닌 세포의 방어기전의 파괴로 멜라닌세포가 파괴된다는 가설로서 白斑症이 보통 색소침착이 심한 부위에 더 잘 생기며 phenol 화합물들이 白斑症과 같은 탈색반을 초래 할 수 있는 등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¹⁾

네째로 유전은 일반인 중에서의 白斑症 발병율은 1-3%뿐인데 비해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백반증을 갖고 있는 가족중에서 발생율은 20-30%였으며^{1),2)} 또한 유전인자 연구에서 일종의 상염색체 유전성 피부병의 일종³⁰⁾으로 나타났다. 기타 근래의 연구⁵⁴⁾에 의하면, Cu-oxydase의 상대적 결핍은 유전적인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백전풍의 발생은 여러종류의 內外因子들이 免疫機能, 神經精神과 內分泌 代謝機能 등 각 방면에 장애를 일으켜 관련 효소계의 억제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白

斑症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²⁰⁾

3. 학문의 시대별 변화

白斑症의 사용약물은 크게 內服, 外用, 內外兼用 藥物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내복약물은 총 155종으로 苦蔘, 甘菊, 丹蔘, 黨蔘, 浮萍, 防風, 沙苑子, 白蒺藜, 女貞子, 烏梢蛇, 蒼耳子, 黑芝麻, 黃耆, 黃精 등이 사용되었고, 외용약물로는 骨碎補, 當歸, 桃仁, 密陀僧, 馬齒莧, 補骨脂, 麝香, 皂角刺, 菟絲子, 烏梅, 白蒺藜, 白芷 등이 사용되었으며, 내외겸용 약물은 苦蔘, 骨碎補, 當歸, 白蒺藜, 補骨脂, 生薑, 連翹 등 이었다.

白斑症의 시대별 분류는 관련자료^{13),15)~19),20),22),24),25),28),35)~47),49),50),52),53),54)~56)}(서적, 논문,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1900년, 1901~1980년, 1981~1990년, 1991년 이후 최근까지 4단계로 분류하였다.

白斑症 상용약물의 虛實分類의 문헌연구에서 總 虛症使用은 49종, 實症 使用藥物은 105종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의 虛症 研究에서는 1900년 이전에 18종 약물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981 -1990년 사이에는 23종, 1991년 이후에서 최근까지는 52종의 약물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표 3의 實症使用藥物에서도 1900년 이전에는 43종, 1981~1990년사이에는 48종, 1991년 이후 최근까지는 91종의 약물이 사용되어 점차 시대가 내려올수록 사용약물의 증가가 뚜렷하고, 1980년 이후에는 전혀 기존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약물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白斑症 관련 학문의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학문의 다양화 측면은 국내의 문헌을 정리한 白斑症의 원인, 치법의 분류를 나타낸 표 5, 6에서도 알 수 있는데 1900년 이전까지는 白斑症의 원인이 風邪, 肺熱, 肺風, 汗出時 皮膚刺戟, 血瘀 뿐이었으나 1981년이후에는 위의 原因 뿐만 아니라 肺腎陰虛, 過度勞倦, 驚恐, 血虛, 肝氣鬱結 등의 原因이 추가되고 있다. 이것은 표 6의 治法에서도 똑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時代가 내려오면서 학문의 발달과 접근의 다양화로 인한 藥物, 原因, 治法 등이 더불어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었다. 특히 白斑症의 虛症에 대한 문헌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실험과 비실험 논문을 비교 검토한 표 7의 결과에서 크게 두두러진 내용은 허증 약물의 使用種類나 量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실험적 방법에 의한 한약물은 주로 허증위주의 약물을 이용하였으며 약물의 종류 또한 특정화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7에서 한의학적인 白斑症 치료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험과 비실험의 약물을 비교했을 때 특히 실험 연구에서 虛症藥物使用量이 두두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차이점이다. 가령, 肝腎陰虛, 陰虛發熱 등에 黃精, 枸杞子, 當歸, 黨蔘, 麥門冬, 補骨脂, 熟地黃, 女貞子, 山茱萸, 何首烏, 黑芝麻, 旱蓮草 등이 대표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약물이며, 그외 覆盆子, 丹蔘, 生地黃, 肉蓯蓉, 川芎, 兔絲子, 黃芪, 黑豆, 沙苑子, 石菖蒲 등도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같은 의학으로 똑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약물이나 질병을 보는 관점의 다양함은 학문의 모순이거나 아니면 백전풍의 학문적 수준이 아직 초보적

수준이라는 兩側面이 서로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문이 성숙되어가는 중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의학의 큰 학문적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약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질병을 치료할때에는 해당 질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처방이 존재할 것이다. 學問의 科學化나 實驗的 研究는 이 약물이나 처방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白斑症 治療의 學問的 접근방법에 따른 약물의 큰 차이는 최고의 처방이나 약물을 찾아가는 단계의 중간단계의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한의학의 학문적인 단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藥物과 處方 등을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方法 그리고 統計的인 比較 技法을 통해 좀 더 나은 치료를 향해 한단계 한단계씩 나아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용약물과 처방의 중요성, 효과정도 등이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要約 및 結論

이미 발표된 한의학 중심의 62종 단행본과 논문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백반증 상용약물중 內服약물은 苦蔘, 補骨脂, 當歸, 丹蔘, 白花蛇舌草, 白芍藥, 何首烏, 女貞子, 烏梢蛇, 自然銅, 紫草, 兔絲子, 黑芝麻, 黃芪, 黃精 등 총 155종였으며, 外用약물은

가지꼭지, 骨碎補, 密陀僧, 補骨脂, 生薑 등 67종이었고, 內外兼用약물은 苦蔘, 骨碎補, 當歸, 桃仁, 白蒺藜, 白芷 등 23종류로 나타났다.

2. 虛症 白斑症 약물은 49종으로 枸杞子, 甘草, 當歸, 補骨脂, 熟地黄, 沙苑子, 女貞子, 黑芝麻, 黃芪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實症 白斑症에 사용되는 약물은 苦蔘, 甘菊, 白蒺藜, 白芷, 白花蛇舌草, 烏梢蛇, 皂角刺, 自然銅, 夏枯草 등 105종으로 실증약물이 2배정도 많았다.

3. 白斑症을 ~1900년, 1901~1980년, 1981~1990년, 1991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의 문헌의 백반증에 사용하는 藥物의 種類, 原因, 治法에 따른 결과에서 국내문헌중 허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枸杞子, 石菖蒲, 何首烏, 甘草, 白茯苓 등 10종내외 뿐이었으며, 국외(중국)문헌의 약물은 42종으로 국내문헌에 사용되는 약물이외에 黃芪, 女貞子, 黨蔘, 覆盆子, 桑椹子, 山茱萸, 黃精 등 22~29종이었으며, 국외문헌에서는 紅花, 烏梢蛇, 眞降香, 朱茯苓, 自然銅 등 69종으로 국내문헌과 과거에 비해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었다.

4. 백반증의 原因, 治法의 시대별 국내·외 비교연구중 국내문헌에서는 風, 濕, 風熱, 肝氣鬱結 등 주로 外因으로 분류하였으며, 시대별 차이가 있었으나 국외문헌에서는 風, 濕, 風熱, 肝氣鬱結 외에 血瘀, 肝腎陰虛, 血虛, 勞倦過多 등 백반증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

류하였다. 治法 역시 국내문헌에 비해 국외 문헌이 다양하였으며 이에따른 시대별 차이 또한 뚜렷하였다.

5. 실험과 비실험문헌의 백반증 사용약물 비교에서, 실험적 방법에 의한 허증사용약물은 枸杞子, 甘草, 金櫻子, 黨蔘, 補骨脂, 沙苑子, 沙蔘, 女貞子, 菟絲子, 黑芝麻, 黃芪 등 40종으로 비실험적방법의 문헌에 사용된 약물은 35종으로 실험에 의한 사용약물보다 적었다. 실험적방법에 의한 實證사용약물은 苦蔘, 甘菊, 桔梗, 桃仁, 蔓荊子, 防風, 白蒺藜, 白花蛇舌草, 烏梢蛇, 眞降香, 蒼耳子, 荊芥, 玄蔘 등 65종이었으며, 비실험적방법에 의한 實證약물은 78종으로 羌活, 凌霄花, 烏藥, 皂角刺, 赤芍藥, 枳殼, 川烏 등으로 실험적방법으로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白斑症 치료 한약물의 시대별 차이점이 존재하며, 특히 중요한 특징은 實症약물에서 虛症 약물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國外(中國)의 文獻과 實驗的 研究에서 使用 藥物과 白斑症 原因들이 研究者에 따라서 대체로 차이가 없어져 가는 것이 특징이며 白斑症의 原因 分類가 臨床的으로 細分化되고 있었다. 또한 동·서의학적 백반증의 원인을 단순한 皮膚病이 아니고, 心身疾患, 全身 및 內科疾患으로 규정하는 경향이였다.

參 考 文 獻

1. 李惟信, 臨床皮膚科學, 麗文閣, 1987, pp.206~209.
2. Thomas P. Habif, Clinical Dermatology a color guide to Diagnosis and Therapy, The C.V Mosby Company, 1985, pp.395~398.
3. 柳東俊 外, 皮膚病百科, 瑞音出版社, 1992, pp.351~357.
4. 顧伯華, 實用中醫外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441.
5. 朱鐵君, 白癜風病人的自身抗體檢查, 中醫皮膚科雜誌, 1987, pp.163~1165.
6. 朱鐵君, 白癜風病因 外周血T淋巴細胞 亞群的 分析, 臨床皮膚科雜誌, 1992, p.129.
7. 尹在一, 光醫學, 麗文閣, 1994, pp.322~326.
8. Stuart. Maddin, Dermatological Therapy, W.B. Saunders Company, 1982, pp.47,483.
9. Thomas. B. Fitzpatrick 외 4인, Dermatology in Gernal Medicine, Mcgraw-hill Book Company, 1979, pp.583~590.
10. Moschewa and Hurley, Dermatology Vol 2, W.B. Saunders Company, 1985, pp.1292~1302.
11. 李仙童, 白斑症의 東西醫學的 接近性研究 (I), 圓光韓醫學, 圓光大學校 韓醫學研究所, 1991, pp.61~69.
12. 李仙童, 白斑症의 東西醫學的 接近性研究 (II), 圓光韓醫學, 圓光大學校 韓醫學研究所, 1992, pp.214~220.
13. 金中鎬, 蔡炳允, 白癜風에 대한 臨床的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제8권제2호, 1987, P90~94
14. 中西醫結合會, 中國中西醫結合會 第二會全國色素性皮膚病學術交流會論文摘要匯編, 青島, 1995.
15. 莊國康, 益氣補腎活血化癆로 治療한 白癜風,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3~84.
16. 朱鐵君, 扶正固本法에 活血去風法을 結合하여 治療한 白癜風,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4~85.
17. 馬紹堯, 白癜風 急性期 穩定期에 대한 여러 가지 治療方法,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5~86.
18. 李秀敏, 白癜風의 診察과治療에서 把握해야 될 점 세가지,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9~90.
19. 淡煜俊, 白癜風의 治療는 먼저 原發과 續發을 分別하여야한다,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6~87.
20. 胡照明, 中國中醫秘方大全, 문희출판사, 11989, pp.398~405.
21. 未詳, 活血化癆補腎益氣治療, 白斑症의 臨床觀察과 顯微鏡 觀察研究.
22. 東醫學研究所編著, 東醫外科學, 驪江出版社, 1994, pp.370~371.
23. 謝明, 張曼華, 廣州中醫學院編, 新中醫, 1990.
24. 蔡炳允, 韓方外科, 高文社, 1983, pp.294~296.
25. 許浚, 東醫寶鑑, 驪江出版社, 1994, pp.944~946.

26. 方平, 劉瓦利, 張作舟 治療 白班症經驗 紹介, 中級醫刊, 1994, pp.50~51.
27. 王俠生, 實用皮膚病診療手冊, 上海科技教育出版社, 1990, pp.128~130.
28. 申天浩編譯, 千家妙方, 成輔社, 1992, pp.436~438, 501~503.
29. 王方凌, 皮膚病治療與護理, 星輝圖書有限公司, 1991, pp.72~76.
30. 張炬, 古今健美匯粹, 北京出版社, PP. 393~425
31. I.C. Jungueria 외2인, Basic Histology, Large Medical Pubilation, 1971.
32. Burkitt M.G 외 2인, Weater's Functinal Histology, Churchill Living stone, 1971.
33. Daved H. Cormaed, Introduction to Histology, 1971.
34. 朱鐵君, 陳秀琴, 白癜風病人發鉍檢查結果分析, 中華皮膚科雜誌, 1989, pp.248.
35. 顧伯康, 中醫外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pp.263~265.
36. 李挺, 醫學入門, 宇光出版社, PP. 283~284
37. 龔廷賢, 萬病回春, 大中國圖書公司, 1970, pp.207~208.
38. 陳實功, 外科正宗,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228~229.
39. 洪元植, 國譯石室秘錄, 書苑堂, 1991, P29
40. 吳謙,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391~392.
41. 王勳臣, 醫林改錯, 一中社, 1992, P55
42. 趙辨, 臨床皮膚病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1, pp.935~942.
43. 趙炳南, 張志禮, 簡明中醫皮膚病學, 中國展望出版社, 1983, pp.254~255.
44. 李搏鑑, 皮膚便覽, 中醫古蹟出版社, 1984, pp.51, 52,101,102.
45. 劉輔仁, 實用皮膚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402~406.
46. 薛己, 薛氏醫案, 醫部全錄, 宇光出版社, pp.284~285.
47. 尙德俊, 實用中醫外科學,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6, pp.540~542.
48. 周鳴岐, 除白散 白癜靈으로 治療한 白癜風,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7~88.
49. 李世文, 當代妙方, 人民軍醫出版社, 1990, pp.414~415.
50. 劉學勤, 龐國明, 百病奇效良方妙法精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p.341~345.
51. 李秀敏, 白癜風의 診察과治療에서 把握해야 될 점 세가지, 한글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 89~90.
52. 樊中州, 外科與 皮膚疾病千壽妙方, 科學普及出版社, 1992, pp.341~345.
53. 龐國明 외4인, 中國秘單偏驗方妙用大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p.487~489.
54. 楊國亮, 皮膚病學, 上海醫科大學出版社, 1992, pp.605~609.
55. 이원춘, 中國韓方處方集, 태학당출판사, 1993, pp.225~227.
56. 朱鐵君 외3명, 扶正固本加活血化於治療白癜風, 中醫雜誌, 1993. P. 177
57. 하태영 외3인, 白班症患者의 Natural Killer 細胞活性值와 T림프구및 T림프구인 형의 변화에 관한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Vol 26, 1988, pp.798~803.

58. 謝忠 외 3인, 白癜風患者 血清中 抗黑素細胞 自身抗體와 臨床發病關係의 研究, 中西醫結合會, 1995, p.2.
59. 朱鐵君, 白斑症과 同形反應, 臨床皮膚科雜誌, 1987, pp.240~241.
60. 朱鐵君 외 2명, 中藥祛白片 祛白酞治療 白癜風的 臨床研究, 北京醫科大學學報, 1990, pp.444~445.
61. 朱光斗, 疎肝解鬱 活血祛風 治療 白癜風深討
62. 張志禮, 白癜風에關한 辨證論治, 韓醫中醫雜誌, 一中社, 1993, pp.82~83.